



## 유럽 증시, 기술적 반등 시도하며 혼조세

### 유럽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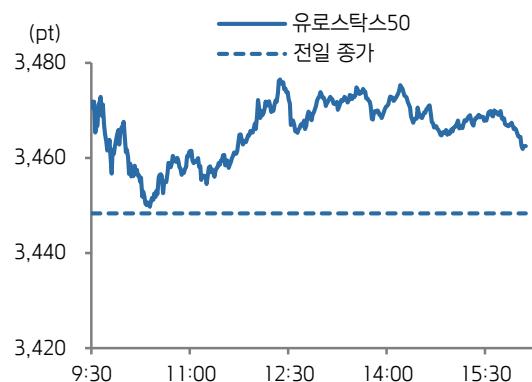
4(월)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. 유럽증시는 독일 수출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, 전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업종 강세 및 낙폭과대 인식 속 기술적 반등 시도하며 혼조세로 마감 (유로 STOXX +0.12%, 프랑스 CAC40 +0.4%, 독일 DAX30 -0.31%, 영국 FTSE100 +0.89%).

독일 5 월 수출은 전월 대비 -0.5%(예상치 0.7%, 전월치 4.4%) 하락을 기록, 수입은 전월대비 2.7%(예상치 0.8%, 전월치 3.5%) 증가. 무역적자 10 억달러(예상치 16 억달러 흑자, 전월치 31 억달러 흑자)를 기록하며 1991년만에 처음으로 적자 기록. 에너지 가격 증가 및 중국의 코로나 19 봉쇄로 인한 수출 둔화 등에 기인한다고 밝힘.

유럽 7 월 센티스 투자자기대기수는 -26.4(예상치 -20.0, 전월치 -15.8)를 기록하며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. 한편, 유럽 5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6.3%(예상치 36.6%, 전월치 37.2%), 전월대비로는 0.7%(예상치 0.9%, 전월치 1.2%) 증가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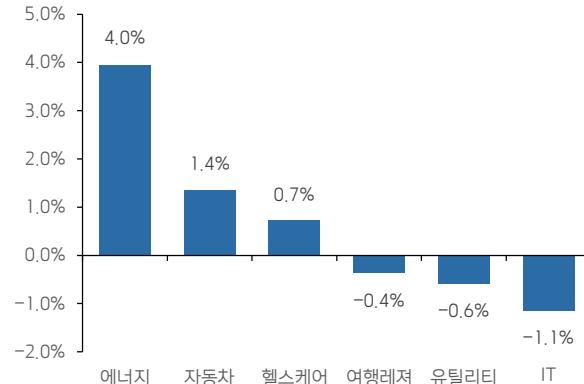
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일부 중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. 미 상원의원은 대중관세가 미국 가정과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직접세이며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중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.

EUROSTOXX50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3,825.33	+1.06%	USD/KRW	1,296.76	-0.03%
NASDAQ	11,127.84	+0.9%	달러 지수	105.18	+0.04%
다우	31,097.26	+1.05%	EUR/USD	1.04	+0%
VIX	27.53	+3.11%	USD/CNH	6.69	+0.01%
러셀 2000	1,727.76	+1.16%	USD/JPY	135.69	+0.05%
필라. 반도체	2,458.46	-3.83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3,289.43	+1.01%	국고채 3년	3.420	-2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475	-2bp
Eurostoxx50	3,452.42	+0.12%	미국 국채 2년	2.833	+0bp
MSCI 전세계 지수	600.71	+0.27%	미국 국채 10년	2.880	+0bp
MSCI DM 지수	2,559.95	+0.54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992.84	-0.78%	WTI	108.43	+2.52%
MSCI 한국 ETF	57.40	-1.36%	금	1808.3	+0.38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 check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**한국 ETF 및  
야간선물 동향**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36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62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95.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**주요 체크 사항**

1. 전거래일 급락세를 연출했던 반도체 소부장 등 일부 종목군들의 기술적 매수세 유입 여부
2. 중국의 6 월 서비스업 PMI 결과 및 그에 따른 아시아 증시 반응
3. 한국의 6 월 소비자물가지수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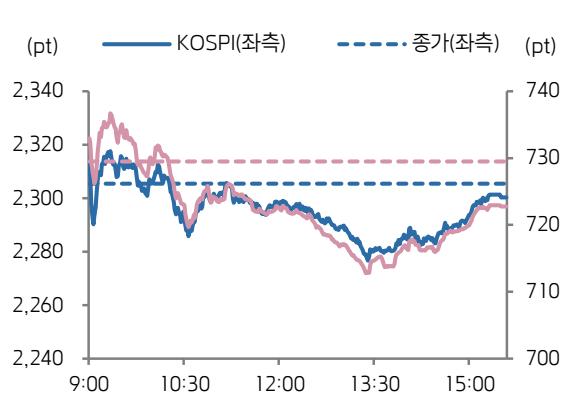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독일의 5 월 무역수지(-10 억유로, 예상 +27 억유로)가 31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나 유로존의 7 월 투자자 신뢰지수(-26.4, 예상 -19.9) 쇼크에서 재확인할 수 있듯이,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상황. 13 일(수) 발표 예정인 미국의 6 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(헤드라인물가 컨센서스 8.8%YoY, 5 월 8.6%), 이처럼 인플레이션 이슈는 상당기간 동안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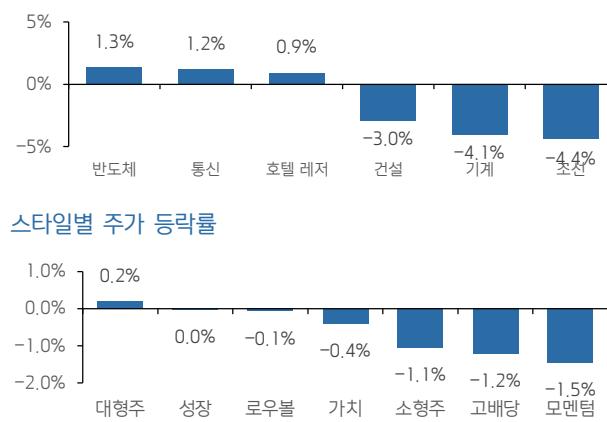
다만, 생활 물가 급등, 연준의 금리인상 부담 등으로 수요 견인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6 월 28 일 Gallup 서베이에서도 미국인들의 약 3 분의 2 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기름값 부담으로 이전보다 운전을 덜하고 있다는 답변(응답률 62%)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. 이 같은 수요 부진의 영향은 최근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가운데, 주중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대중 관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. 물론 본 관문인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히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(레벨 다운), 지난 5 월 소비자물가 때 실패했던 1 차 관문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6~7 월 데이터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.

전거래일 미 ISM 제조업 부진 충격, 특정 테마 재료 소멸 인식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(코스피 -0.2%, 코스닥 -0.9%)는 금일에도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전망이나, 반도체 소부장 등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매수세 유입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. 장중에는 6 월 럭다운 해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6 월 서비스업 PMI 결과에 따른 중국 등 아시아 증시 방향성에 영향 받을 전망. 또 평소라면 수출 지표를 제외한 여타 국내 주요 지표에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, 한국도 기업들의 비용, 내수 소비, 한은의 금리인상 강도에 민감한 상태인 만큼 6 월 국내 소비자물가(컨센 5.9%)가 6%대로 나올 시에는 이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.

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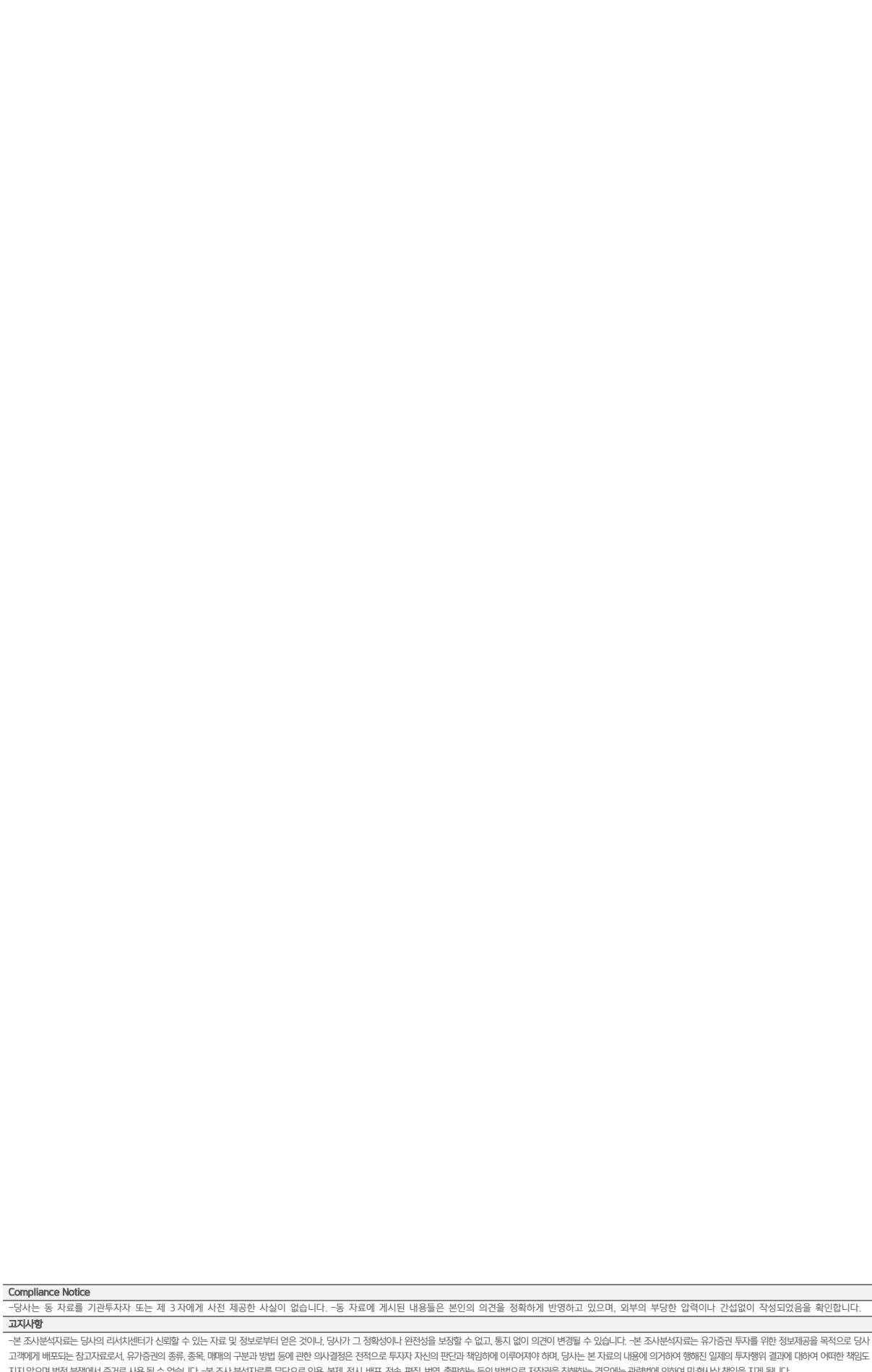
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

Compliance Notice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<b>고지사항</b>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